

살구나무재배 (I)

이 여 하

<진대 농대 교수·농학박사>

1. 서 론

우리나라의 살구나무재배 역사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먼 옛날부터 재배되어 현재로는 일부 난대지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있으며 완전 풍토화된 가정과수라고 할 정도로 애호를 받고 있는 유실수라고 볼 수 있다.

살구의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등지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살구의 가공공업이 산업화되어가고 있을 정도로 성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한 품종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대로 전래되어 오는 재래종의 자연번식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의 개량된 우량품종의 보급이 어렵다.

살구는 자양식품(滋養食品)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과실로서 특히 비타민 A의 함량이 어느 과실보다 많기 때문에 야맹증이나 안질등에 효과 크다고 알려져 있다.

과육은 수분이 85% 열량이 100gr당 53cal이며 특히 산미도 많고 높은 향기와 당분등이 많아 7월 초여름의 피로하기 쉬운 체질에 효과가 있다한다.

살구씨의 기름은 식용 향료 약용 및 기계유로 사용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살구씨속에는 아미그다린(Amigdalin)이 함유되어 있어 각종 진통진해제로서 호흡기의 염증 심장병 폐결핵등의 치

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특히 살구의 가공비율은 다른 과실에 비하여 높아가는 경향이 저구에서 뿐아니라 특히 미국에서는 잼이나 젤리등의 제조용으로 적합하고 주스, 벡타, 통조림 그외 건살구등은 향기가 좋아 식용으로 일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가공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살구의 산과 펙틴(Pectin)의 함량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이상에서 지적한 각종 가공제품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한다면 그의 전망이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쭙까지 우리가 살구는 단지 시골의 밭뜩에 한두 그루 자연식재되어 꽃이나 피고 신 개살구정도로 여기는 단계는 아니고 집약 대량 재배하여 살구를 가공하면 국내에서도 영양식품 또는 약용식품으로서 선전이 되고 외국에서 인기품목인 식품으로 선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기회도 마련하면 좋을 상 싶은 욕심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간다면 다행이라 생각된다.

특히 살구는 어느 유실수 보다 재배가 용이한 점은 재배규모를 크게 할 소지가 있는 유실수라 봐진다.

2. 재배 분포와 적지

살구나무의 원산지는 중국의 하북 산둥지방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로는 세계 총생산량의 약 24%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의 여름 건조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고 불란서 스페인의 순으로 많이 생산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대지방을 제외한 전역에

분포되고 있으며 특히 경북과 경남 충북의 순으로 재배면적이 많다.

충북의 괴산 경남의 밀양 경기도의 고양군 등지는 살구의 주산지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다.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재배지역과 재배주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1969년도의 192ha에 595톤이 생산되었던 것이 불과 3년후인 1972년도에는 332ha에 면적은 늘었으나 생산량은 1971년도의 893톤의 반인 446톤으로 감소현상을 빚고 있으나 이는 당년에 병충해의 피해가 있었던 것 같다.

살구나무는 해발고 500m까지도 재배가능하지만 기후적으로 초여름 건조기에 결실이 잘 된다.

살구는 어느 유실보다도 개화기가 빨라서 봄의 늦서리의 해를 받는 수가 많다.

늦서리의 해는 꽃뿐만 아니라 어린 열매에도 피해가 간혹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개화기에 비가 자주 많이 오는 때에는 수정이 잘 되지 않고 성숙기에 비가 잦을 때에는 열과를 이르게 상품가치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기온은 개화시의 온도가 10°C이상 일일 때에는 13°C이상 결실시에는 18°C이상의 온도가 적온이다.

살구나무는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적은 동남쪽과 북서쪽이 비교적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방향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이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알맞다고 볼 수 있다.

토양에 대하여는 적응범위가 어느 유실수보다도 크다.

가급적이면 표토가 얇은 곳보다는 표토가 깊고 사양토보다는 약간의 점질이 섞여 있는 점질토양에 잘 생육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점질토양은 배수가 불량하므로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한다.

살구나무는 내수성이 약하므로 특히 지하수가 높은 곳은 좋지 않다.

따라서 재배적지 범위가 기후적으로 적합하고 토양에 대한 적응범위가 넓어 사질토에서부터 점질토양에 이르기까지 배수만 잘 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3. 품 종

우리나라 중부 이북지방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만주살구가 분포되고 있으나 품종별로 정확히 분류된 것이 없고 주로 실생으로 자연 번식되어 온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품종가운데 일부 우량종을 선발하고 외국종도 근년 많이 도입식재되고 있다.

품종선택상 주의할 점은 살구의 저장상 보구력이 강한 품종이 여야한다. 생산된 살구가 가공품으로 알맞는 품종이면 좋지만 우리나라 국내산과 같이 신맛이 많이 나는 품종은 가공보다는 생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일정기간 저장해도 상하지 않는 품종선택이 중요할 것이다.

가급적 수확기가 빠른 조생종이 좋다. 외국종보다는 국내종이 수확기는 일반적으로 빠른 것이 보통이지만 가공품보다는 생과로 식용할 때 특히 복숭아의 수확기와 같지 않은 품종 즉 복숭아보다 숙기가 빠른 것이 좋다.

과실이 크고 수량이 많으며 신맛보다 단맛이 나는 품종선택이 좋다.

이런면에서는 국내종보다 도입종이 훨씬 유리하다.

이하 주요 품종에 대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평화(平和)

수세는 중정도이나 강하며 개장성(開張性)이고 4월 초에 개화하여 조생종이다.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걸쳐 성숙하는데 과실의 크기는 40gr정도로 과육의 성숙시 색 같은 등황색을 띠우고 육질은 우량하고 감미가 강하다.

가공품으로 적합하여 시럽에 알맞다.

재배상 문제점이라면 줄기마름병에 약한 것이 결점이므로 약제살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저습지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는 재배를 피하여야 한다.

(2) 궁판(宮坂)

수세는 중정도이며 북해도 원산으로 개장성이다. 평화와 마찬가지로 개화는 4월 상순이며 조기 결실이 되어 어렸을 때에도 수확량이 많다.

과실의 크기는 40gr 정도로 크고 과피는 녹색 등황색(綠橙黃色)으로 아름다우며 육질은 우량하고 산미가 강하다.

만생종으로 수확기는 7월 중하순경이며 열과가 적은 것이 특징이며 각종 가공품으로 알맞다.

특히 비옥한 땅에 식재하여야 하며 어렸을 때부터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량을 많이 하여야 한다.

(3) 신사대실(新瀉大實)

일본의 니이가타지방 원산으로 수세가 강하고 성장함에 따라 개장성으로 피며 많은 과실이 달린다.

4월 상순에 개화하고 결실량이 많아 많은 양을 적과해줘야 한다.

타원형의 큰과실로서 평균 45gr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과피색은 등황색으로 육질도 우수하다.

열과가 되지않는 좋은 점이 있으면 보구력이 있어 저장에 좋다.

7월 중순경에 성숙하는 중생종이며 특히 향기가 있다.

가공품으로 알맞는 유망수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풍산이 되고 격년결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산형호(山形號)

수세는 강하나 어렸을 때는 직립성이고 수명이 많아짐에 따라 개장성으로 된다.

개화기는 4월 상순경이고 7월 상순에 수확하는데 과실의 크기는 40gr 정도로 큰 과실을 생산하는데 특히 어렸을 때부터 수확하는 특성이 있는 타원형인 모양을 하면 등황색을

나타낸다.

성장이 속하면 병충해에 강하고 비교적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5) B-6

국내종으로 분류된 것인데 수세가 강하고 개장성을 나타낸다.

개화기는 4월 상순경이나 6월 중순경에 수확하는 가장 빠른 조생종이다.

과실은 평원형으로 등황색을 나타내면 35gr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열개되지 않으면 격년 결실도 하지않는 좋은 품종이면 향기가 좋고 감미가 있어 식용으로 좋다.

결실이 잘되나 타가수분에 의함이 좋기때문에 수분수를 식재하여야 하며 남부지방의 비옥하지 않은 산지재배에도 좋다.

(6) D-19

국내에서 선발한 것으로 수세가 강하면 4월 상순에 개화하여 6월 하순경에 성숙하는 조생종이다.

격년결실이 없는 풍산성이면 비교적 척박지에서도 잘 생육하는 유망종이다.

과실의 크기는 40gr. 중량을 갖이고 있으면 타원형으로 등황색을 나타내고 있다.

향기가 많고 육질이 우수한 품종으로 오래 저장할 수 있는 품종이기도 하다.

4. 번식법

(1) 실생법

유실수번식은 과거 실생법에 주로 해왔기때문에 품종면에서 고르지 못했고 실생번식에 의한 결점이 너무 많으나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월중에 종자를 수집하여 주로 양지 바른 곳에 노천매장을 한다.

표지는 약간 경사지로서 사질양토를 택한다.

즉 배수가 양호하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좋은 곳을 택하도록 한다.

상은 상상 또는 평상으로 하고 m²당 유안

17gr 과석 39gr 퇴비 두관을 기비로 넣고 작상한다.

과종은 4월 초순에 접과 또는 조파로서 1m당 9개씩 과종한다.

과종후의 관리는 배수에 유의하고 제초만하여 주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생육에 큰 지장이 없다.

이와같이 양묘한 묘목은 1~1.5m성장함으로 봄에 직접식재하면 된다.

(2) 접목법

실생법의 단점인 형질이 일정하지 않고 좋지 않은 과실이 생산됨으로 접목법에 의하여 번식하도록 해야한다.

㉔ 대목양성

살구나무의 대목으로서는 살구외에 복숭아 매실 자두나무등 여러가지를 쓸수 있으면 접의 활착율도 비교적 좋다.

대목용으로 쓰이는 살구(공대)종자는 7월이후 수확되는 만생종에서 채취하여 과종하여야만 발아가 좋다.

매실나무 대목은 활착이 쉽고 처음의 발육이 좋지만 10년생이상이면 쇠약하여 지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복숭아나무 대목은 활착율이 높고 건조한 땅에 견디는 힘이 좋으므로 건조하기 쉬운 사질 토양에 식재함이 좋고 성장율도 양호함으로 대목으로 알맞다.

이상의 대목용 종자를 실생법과 같이 과종하여 1년생이 되면 굵기가 연필굵기 정도로 자란것이면 접목에 알맞는 크기이다.

따라서 접목은 가을의 아접이나 봄의 절접으로 실시하는데 눈접이 활착율도 높고 작업하기도 편리하다.

눈접은 과종한 당년인 8월상순부터 9월상순사이에 즉 대목의 껍질이 잘 베껴지는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같이 대목의 껍질이 잘 베껴지도록하기 위하여 접목 10일전에 요소비료를 시비한 후에 접을 하면 훨씬 유리하다.

눈접의 활착은 접한 후 10여일이 경과하면 곧 활착여부를 확인 할수 있는 것이다.

활착이 되지 않은 대목은 다음 봄에 다시 절접을 하여 성공하도록 하면 유리하다.

절접은 접수를 미리 채취하여 길이 30cm로 잘라 여러개를 다발로 묶어 음진시킨 후 그늘의 모래속에 묻어 두었다가 접목한다.

접수는 2월 상순경에 채취하여 저장한 것을 사용하는데 절접시기는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 사이가 좋고 좀 늦어질 경우에는 접목을 하기 2~3일 전에 대목을 접목예정부위보다 약간 높은 곳에 접하면 안전하다.

아접이나 절접에 있어서 비닐끈으로 매여주는 것이 예사인데 활착된 다음해 전부 면도칼로 잘라줘야 함은 다른 나무의 접과 마찬가지로 이다.

또한 눈접에 있어 활착된 것은 다음해 3월경에 접목부 윗쪽의 대목을 절단한다.

이때 대목부에서는 결눈이 많이 발생하게되는데 이와같은 결순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거할 것이면 복합비료를 1차 주어서 묘목을 건실하게 성장시키고 또한 자주 중경제초를 실시하여 토양내 뿌리의 발육을 견고히하고 각종 병충해의 구제를 철저히 하여 주면 다음해 봄에 식재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 좋은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식재 및 수익성관계는 다음호로 미루기로 한다.

* 지난 9월호 업계정보(70페이지)난에 동두천분회 일선장병에 계란 보내 위문은 "의정부양계회"의 잘못이었으며 아울러 회장도 전홍기씨로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 한두교역 신제품 한두-하이프로 1,2 개발 한두교역에서는 한두-라이프에 이어 반추동물용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인 한두-하이프로 1,2를 개발 곧 시판하리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22-8505로 문의 바란다.